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86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3월 13일 (음력 2월 7일) 수요일

분노·상처만 남긴 피고인 전두환 광주 형사재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부인 이순자씨와 손을 꼭 잡은 채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의 화살 책임자로 지목 받는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광주지법에서 형사재판을 받는다. 전 씨의 광주행 소식이 '사과라도 할까'

광주 머문 4시간 진정성 없는 행동에 공분 일으켜 5·18단체 “엄중한 사법·역사적 단죄 필요” 강조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광주시민의 비참은 그가 법원에 머문 4시간여 동안 기대에서 실망으로 다시 분노로 이어졌다.

법정 인박에서 보여준 진정성 없는 행동과 발언 때문이었다.

전 씨가 광주를 떠난 지 하루가 지난 12일 역시 치솟았던 분노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전 씨는 역사의 진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길 간절히 바랐던 시민을 위로 한 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치밀하게 준비해서 온 것 같다. 특히 자기 변명만 늘어놓고 재판 전후 뻔뻔함을 보이면서 공분을 일으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민의 처절한 외침은 5·18의 아픔과 상처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전 씨는 광주의 이픔을 헤아리고 만행에 책임져야 한다. 엄중한 사법·역사적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후식 5·18 부상자회 회장은 “전날 재판은 너무도 실망스러웠다.면서 ‘항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례적인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39년 전 광주에서 수많은 시민을 죽임으로 내몬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 씨가 법정 인박에서 보인 뻔뻔한 태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제대로 단죄해야 역사가 바로 서고 진상 규명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 재판이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 소송 법률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은) “공소사실 뿐만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 전체 가해 행위에 대해 반성과 사과가 없었다”며 “앞으로도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이번처럼 강제구인해 법정에 세우고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봉우 기자



존재감

목표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해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각료들과 줄지어 인사하는 등 눈길을 끌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열리는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온 손 의원이 무소속 자리에 혼자 앉아 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이 다가와 인사를 했다. 곧이어 이개호 농림부 장관이 손 의원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자 옆에 있던 조영균 통일부, 박상기 법무부,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인사를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며 손 의원과 인사를 나누는 뒤 회동만대화를 나누었다. 이날 손 의원은 국무총리, 부총리, 장관 등과 줄지어 인사를 나누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관련 인사들의 수배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자료사진=뉴시스



손혜원



손혜원



손혜원

오늘 전국 조합장선거 광주·전남 272곳 실시

오후 7-8시 당선 윤곽·무투표 31곳 당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3일 광주·전남지역 272곳 투표소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12일 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되며 농·축협 161곳, 수협 20곳, 산림조합 22곳 등 203곳 조합의 대표자를 선출한다. 선거권자는 2만5564명, 전남 33만4525명이다.

후보자는 광주 52명이 등록해 평균 2.8대 1, 전남은 446명이 등록해 2.4대의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이르면 이날 오후 7시부터 당선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1명이 등록해 무투표 하는 조합은 광주 2개, 전남 29개 등 총 31개다.

선거는 해당 구·시·군 투표소에서 진행되며,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발송한 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rec.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광주 지역화폐 발행에 시민단체 우려

“공정회 통해 시민의견 반영하고 의회와도 협의해야”



광주 지역화폐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이 12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화폐 발행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광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를 발행할 예정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했다.

광주경실련 등 지역화폐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은 12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가 형식적인 공정회를 한 후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도 아직 만

들지 않은 채 지역화폐 출시를 공표했다”며 “지역 상공인과 공정회를 여러차례 개최하고 시의회와도 조례 제정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모임은 “지역카드 수요자인 시민들은 기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시 제곱되는 혜택과 지역화폐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각종 할인과 캐시백 포인트로 지역화폐의 소비를 유인하기에는 한계가 많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소비자의 결제 수단이 첨단화, 다양화 돼 가는데 단순히 지역 체크카드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시대의 흐름에 맞춰 광주 지역화폐가 모바일, QR코드 등 다양한 수단이 가능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지 않으면 지역에서 이뤄지던 소비가 지역화폐로 바뀌었을 뿐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은 ‘왜 가게를 찾던 사람들’이라는 결과를 만들었던 다른 지역의 실패를 간과하면 안된다”고도 제안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는 이달 중 지역화폐 발행이라는 목표를 고집하지 말고 제대로 된 공정회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남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9 최우수축제

제4회 진도 신비의바닷길 축제

2019. 3.21. 목 ~ 3.24. 일

전남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 일원

만남이 있는 신비의 바다로!

주최 Jindo | 주관 (사)진도군관광진흥위원회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전라남도 | 한국관광공사